‘통도사’ 전통·현대 아우를 문화공간 첫 삽

4월 24일, 건립 기공식 개최
유네스코 권고 따른 후속조치
수행환경 보존과 편의 제공
306억원 투입, 2027년 말 완공

이도경 부산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총림 통도사가 4월 24일 시삽으로 문화공간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방문객 편의와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통도사는 4월 24일 제1주차장에서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대중 스님,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영석 양산시 국회의원, 김신호 양산시장대행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원만 회향을 발원했다.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순례공간과 문화·편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사찰 고유의 수행 환경을 보존하고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성수기 방문객 몰림 현상을 완화하고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주목된다.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기간이 길어졌지만, 더욱 완성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문화공간과 통도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기관과 사부대중의 원력과 협력으로 시작된 불사인 만큼 원만 회향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영석 국회의원, 김신호 양산시장대행도 문화공간 건립을 축하하고 경남도와 양산시 및 관계 기관이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세계유산 보존과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건립 계획에 따르면 하북면 지산리 일대 9990㎡ 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연면적 3229㎡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인근 5373㎡ 부지에는 연면적 1038㎡ 규모의 편의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방문객을 위한 휴게 및 문화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찰 내부의 수행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2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왔다. 2023년에는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변경 후 국가유산청의 원안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5년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의 최종 설계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심의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문화공간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문화공간 건립을 통해 세계유산 사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수행과 참배 중심의 전통 도량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팔만대장경 호국정신 미래 전승”

제6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4월 24~25일 정대불사 봉행


해인사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개최한 ‘제6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기렸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기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제66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라는 국난 속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의 호국정신과 선현들의 원력을 계승하고, 오늘날 국민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인경 체험, 선장본 제작 체험,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컬러링 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성보박물관에서는 주지 혜일 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이운행렬과 봉찬 의식이 진행됐다. 이어 철야기도가 봉행되며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정진의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탑마당에서 법석이 열렸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념사에서 “팔만대장경은 국난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원력의 결실”이라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되살려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팔만대장경은 중생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지혜의 가르침”이라며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으로 실천할 때 대자비와 대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했다.

법요식 후에는 ‘제2차 제11회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가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오후에는 화엄경 독송과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공덕주 헌다례, 화엄시식, 소전 및 회향 의식이 이어지며 정대불사의 의식이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상·해운대·광복로 원도심에 ‘자비의 등’

사상 · 해운대불교聯, 봉축 점등
광복로연등문화제 5월 25일까지


해운대구불교연합회의 봉축 점등식 모습.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주요 도심이 화사한 연등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 스님)는 4월 24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에서 ‘석가탄신일 봉축 점등식’을 열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밝히는 이 등불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전하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4월 26일 구남로 특설무대에서 ‘불기2570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계 곳곳의 전쟁 등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 자비의 빛이 닿아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광복로연등문화제봉행위원회(위원장 하림 스님)가 주관하는 ‘2026 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개막해 오는 5월 25일까지 34일간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열린다.

현재 광복로 시티스퐛에는 8.5m 높이의 국보 ‘중원사지 7층 석탑’ 대형 전통등과 1500여 개의 LED 거리 연등이 불을 밝혀 화사한 봉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월 9일에는 점등식과 연등행렬이 진행되며,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채로운 ‘봉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연꽃 컵등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환경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청보리밭서 피어난 ‘문학인 꽃축제’

4월 25일, 전국문학인 꽃축제
성파 스님 “문학, 정신 영양제”


특설무대에서 ‘제16회 전국문학인 꽃축제’를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이 10만 평 규모의 청보리밭을 무대로 전국의 문학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열었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서송 스님)과 전국문학인꽃축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아)는 4월 25일 장밭들 운동장에서 ‘제16회 전국문학인 꽃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4회 한국꽃문학상 시상식과 제24회 들꽃축제, 제8회 전국문학인 및 시민 백일장을 아우르며 한층 다채로운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6번째 꽃시집 〈작고 예쁜 꽃잎처럼〉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운암 감원 서송 스님 등 스님들을 비롯해 정영자 명예운영위원장(문학평론가),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선아 운영위원장, 양산시 및 시의회 관계자, 전국 문학인과 시민이 참석했다.

종정 성파 스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바른길을 알려주는 훌륭한 수단이 바로 문학”이라며 “우리가 음식을 먹어 체력을 유지하듯, 문학은 정신 건강을 위한 영양제와 같다. 앞으로 문학을 더욱 숭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14회 한국꽃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접수된 418편의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17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대상은 이경주 시조시인(창원)의 작품 ‘복수초’에 돌아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자유치원 100년 역사 조명 전시

‘우리는 잎트는 조선의 꽃’
마산박물관서 8월 30일까지



내년 개원 100주년을 앞둔 창원 정법사 대자유치원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마산박물관에서 열린다.

창원시립마산박물관은 4월 28일 년 기획전 ‘우리는 잎트는 조선의 꽃’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최근 대자유치원 기록물 8건 31점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는 8월 30일까지 계속된다.

1927년 5월 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에서 개원한 대자유치원은 올해 입학 100회를 맞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유치원이다. 전시는 ‘일제 강압의 시기를 견디다’, ‘배움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 마음’, ‘결국, 봄’ 등으로 구성돼 시대 흐름 속 대자유치원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체험 프로그램 ‘광복의 조각, 큰 물결을 이루다’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이 전시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자유치원 이사장이자 정법사 주지인 광우 스님은 “대자유치원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던 소중한 도량”이라며 “이번 전시가 그 정신을 되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자장율사 다맥 잇는 ‘햇차 헌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올해 첫 햇차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1400년을 이어온 선차(禪茶) 정신을 되새겼다. 통도사는 4월 27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옆 다원에서 ‘차 제다 및 헌공의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스님들이 직접 차밭을 가꾸고 찻잎을 따서 제다해 부처님께 올리고 대중이 나누어 마시는 이 모든 실참(實參)의 과정이 곧 수행이자 우리 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통도사 다원에서 성파 스님(오른쪽)과 율주 덕문 스님이 햇차를 수확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명 대사 춘계 향사 “호국 정신 계승”

4월 23일 밀양 표충사 사당서
진각 스님 “유물 복원할 것”



사명 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을 기리는 춘계 향사가 봉행됐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4월 23일 표충사(表忠祠) 사당에서 ‘제565회 사명 대사 춘계 향사’를 봉행했다. 표충사 향사는 서산·사명·기허 대사를 기리기 위해 조선 영조 대에 시작된 국가 제향이다. 불교 의례와 유교 의례가 함께 진행되며 봄, 가을에 열린다.

진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명 대사 추모 의례는 조선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절을 기리기 위해 불교와 유림이 함께 이어온 전통”이라며 “오늘날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대사 유물 복원 불사를 통해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참석 대중은 사명 대사와 호국 성사들의 공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사명 대사의 삶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KBS 1TV ‘역사스페셜’의 ‘사명 대사, 백성을 지키다(가제)’ 편이 5월 24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혜명사, 지장참회 천일기도 회향

4월 25일 공승법회 봉행



김해 혜명사 사부대중이 지난 3년간 이어온 지장참회 천일기도를 마치며 공승법회를 봉행해 수행의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정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해 혜명사(주지 혜명 스님)는 4월 25일 ‘지장참회 천일기도 회향 및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간절했던 지장참회기도가 원만히 성취돼 그 기쁨을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화엄경 사경기도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환희로운 정진 속에서 법향 가득한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화엄승가원은 혜명사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천일기도를 원만 회향한 스님과 신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화엄승가원 종정 자인 스님은 “사람의 몸은 덧없고 무상하지만 수행과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며 “걸림 없이 사는 삶과 공덕을 쌓는 길이 곧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